

정화이후 결성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우당바라회의 정신을 이어 1985년 창립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숙원 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내 로라 하는 활동가이자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가해 1일 6부 체계의 내실화를 다지며 비구니 스님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세계여성불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비구니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이끄는 스님들



명망높은 전문가 활동가 총집합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바로 창도 운문사 회주인 명성 스님.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스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 스님이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운문사승가대학을 개원해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헌신해 왔다.

지금의 운문사를 만든 주역인 스님은 7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출세간의 문을 열고 이제 출세간으로 나와 매일 임원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 회장인 광우 스님이 전국비구니회관이라는 대들보를 쌓았기에 명성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위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8차 세계 여성불자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사진=김두식 기자

수행·교육체계 확립에 주력

부회장단을 대표하는 수석부회장 명우 스님(성심사 주지)은 1985년부터 총무부장의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회에서 활동한 대표적 인물인 실무형 전문가다. 종회의원, 목동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비구니계단의 증명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 부회장단으로 부산지역 비구니회 모임인 금련회장을 맡고 있는 지원 스님(보림사 주지)은 비구니 전계대화상. 계율에 관심이 많고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시설을 운영중이다.

재운(경산포교당 주지) 스님은 마산대학교 불교학과와 법아사 강원을 나와 현재까지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민(현대선원 주지) 스님은 7·8·9대 종회의원을 역임했고 개심사 강원, 서울 청룡사 강원 등에서 강

사를 지낸 교학 분야의 대가다.

대화복지관장으로 불교복지의 선두주자인 수현(안흥사 주지) 스님, '자비의 전화'를 개설하고 10여년간 불교 상담 분야를 개척한 정덕(인교선원 주지) 스님, 평생을 수행에만 전념해온 도문(전 석남사 주지) 스님도 부회장으로 비구니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비구니 발전 정책과 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획실장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해원 스님이 맡고 있다. 중국선종사 분야의 석학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에서 '산사의 향기', '살며 생각하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재범(인월사) 스님이 기획 국장으로 해원 스님을 보좌하고 있다. 총무 부장 자광(법계사 주지) 스님은 비구

니회 조직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 내원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스님은 종무행정 분야의 달인이다.

보문중고등학교 교법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효탄(대자사) 스님이 총무국장 소임을 수행중이다.

전국비구니회지인 <비구니>발간과 비구니 수행 교육을 실시할 교무부는 일법(법천사 주지) 스님이 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경북 구미 대운사 불사에 평생을 매진한 스님은 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비구니계 원로·중진 스님들과 친분이 두텁고 전국비구니회 초창기 멤버로 비구니사(史)에 해박하다. 교무국장인 정운(니력선하원) 스님이다.

재정 분야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 부장 명수(미타사 대성암 주지) 스님은 사찰

재정을 일반 신도에게 일임해 투명성을 높인 선구자다. 재무국장 계명 스님과 함께 수익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구니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의 추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사회부. 별도의 추진 위원회가 있지만 캐나다 등지에서 오랜 기간 해외 포교에 매진해온 광욱(불덕사 주지) 스님이 부장으로 담교(법법사) 스님과 함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비구니 자원봉사 인력 네트워크와 정기적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도 고심중이다.

세계 여성불자대회 준비 한창

운달(미타사 주지) 스님은 설외부장으로 대의 홍보나 설의를 전담하고 있다. 동화사 미타암 중장 불사를 회향한 스님은 평소 아이디어맨으로 통할 정도로 기획력이 뛰어나다. 조직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응화를 잘 시킨다고 평가받고 있는 스님은 실천승가회 인권위원회 부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조(정릉암) 스님과 함께 환경, 인권, 통일, 여성 관련 NGO 연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을 연구하고 불교심리상담소 개설을 모색하고 있는 규장부는 양산 내원사 등에서 13만여를 성만한 승혜(법웅사) 스님이 부장 소임을, 회유(금곡사) 스님이 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과 종회의원 계호(보광사 주지) 스님이 감사로 전국비구니회의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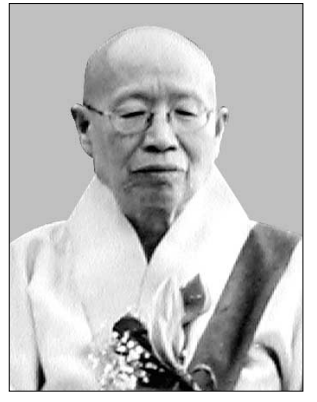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0> 진관 스님

어린이법회의 선구자

"수행자는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차이가 없어.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한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해."

서울 삼각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고찰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은 "스님은 수행에 열심히 매진해야 하고, 재가불자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자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가 밝아지고 더불어 사는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스님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다른 스님보다 일찍 법당에 올라와 아침 예불을 준비하고 108배, 참선, 독경 등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 상좌 스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좀 쉬시라고 하면 아직도 수행자

고 도량을 가꾸기 시작했어." 진관 스님은 광우 스님 등과 함께 전국비구니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1985년부터 부회장 소임을 맡아 비구니회관 건립 사업을 세우고 전국을 돌며 모연을 했다. 당시만 해도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좀 쉬시라고 하면 아직도 수행자

광우 스님 등과

전국비구니회 만들어

가 어떻게 편안함을 찾느냐며 호통을 치실 정도이니 스님이 얼마나 철저한 수행자인지 알 수 있다.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난 진관 스님은 1945년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에서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월정사 강원에서 탄허 스님에게 사시를 받았다.

1960년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 지리산 국사암, 문경 대승사 운림암, 예산 보덕사 등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진관사와의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1973년 주지로 부임, 현재까지 30년 이상 불사를 해오고 있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 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前 전등사 조실 서운 스님이 하루는 나를 보고 네가 고려시대 때 진관사를 창건한 진관 스님의 화신이라며 진관사에 가서 청정 도량을 만들라고 하셨어. 생각해 보니 환문은 다르지만 한글로는 법명도 같고 해서 내 일이려니 하

어린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진관 스님은 어린이법회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1880년 초부터 불교의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법회를 열고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사중에서 된장, 청국장 등을 팔아 어린이 법회에 기부해 재정적으로 안정시켰고 풍물, 다도 등을 가르치면서 불교적 소양을 심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회를 졸업한 학생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1996년에는 행선동에 코끼리 유치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진관 스님의 상좌인 진관사 총무 수경 스님은 "큰 스님은 거울과 같은 스님"이라며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스님을 보면 내가 어떤 수행자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경역이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본지 466호 4면 '한국의 비구니 스님-성인 스님' 기사에서 정목 스님은 '상좌'가 아닌 '손상좌'로 바로잡습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에 수재 법회

절기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시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신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큰스님사리친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숭법요식	우리절

제3계 태화산신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6계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계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